

살풀이 예배

혹시 여러분께서는 무당(무속의 사제자로, 길흉화복을 점치고 굿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굿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煞)을 벗겨낸다고, 귀신을 불러내거나 쫓아낸다고, 관모(冠帽)에 홍도포(紅道袍)와 관대(冠帶)를 두르고 쉴 새 없이 칠쇠방울[칠금령(七金鈴)]을 흔들어대며, 행하는 푸닥거릴 말합니다. 거기에 징에다 팽과리에다가 그것도 하늘이 머리에 닿을 정도로 펄쩍펄쩍 뛰어가며 정신없이 주문을 외고 있는 형국이란 가히 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분위기가 무르익어 무당이 작두날에나 한 번 오르게 되면, 팔죽의 새알 빗듯 두 손 비비며 기복(祈福)에 임하고 있는 주위사람들의 온 얼굴은 그야말로 6.25는 난리도 아니게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기 십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위의 누군가가 실신해 땅위에 벌러덩 드러눕게 될 요량이면 급기야 주위사람들 모두 혼비백산(魂飛魄散)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무아지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태를 미소로 꺾꺾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상위에 싹둑 잘려진 목만 빼끗하게

내보이고 있는 돼지머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당곳은 그렇다 치고, 혹시 여러분께서는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가수의 콘서트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필자 또한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여기에 비할라치면 무당곳은 곳도 아닙니다. 혼비백산은 둘째치고서라도 내가 옆 사람인지 옆 사람이 난지 도대체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형형색색의 야광막대, 핑음의 전자악기음향, 여기에 휘황찬란하게 번뜩거리는 레이저 빔(Laser Beam)까지 그야말로 언제나 그곳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무당 아닌 무당의 집성촌이 되고야 맙니다. 비록 작돏날은 없어도 이로부터 비롯된 때마다의 콧물과 눈물 그리고 왕왕 몇몇의 실신은 무당곳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무아지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태를 미소로 곳곳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 걸린 반 토막 난 몸만 깨끗하게 내비치고 있는 하현달(下弦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지난 최근에 필자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에서 미뤄두고 있다가 끝내는 큰맘 먹고 집에 케이블 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곧 슬하에 두 자식 모두 출타하여 외유(外遊) 중에 있었던 까닭에 그런대로 부담은 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케이블 TV 편성 프로그램 중에서 필자가 때마다 눈여겨보며 시선을 떼지 않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몇 개의 기독교방송 채널입니다.

필자는 방송매체를 통한 ‘선교사역’(宣敎使役)이나 ‘순수복음전파’(純粹福音傳播)의 시각에서 이 같은 기독교방송을 매우 뜻 깊고 의미있다고 보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핵심은 모든 방송의 목적이 오로지 수익창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 그 결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두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자명하다면 필자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고 있는 크리스천 된 우리 모두 또한 그 뜻과 의미를
다르지 않게 새기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독교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주일예배는
처한 형편이 허락되지 않아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사람, 예를 들면
환우(患友)나 멀리 원양어선에 몸을 싣고 있는 선원 또는 해외동포들에
게는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을 것이고(순수복음전파의 시각에서), 또한
해외선교 사업의 당위와 필요성에 관한 역설(力說)을 통해 이에 직간접
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해외선교 사역의
시각에서) 모두 함께 본래의 순기능적 의미를 곧추세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양의 심도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시때때로 순수복음의 낱말과 면면을 바로보고 또한 뜻 깊게 새길
수 있다는 시각에서 그 효용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필자의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보다 정확히는 왜곡된
시각에서 비롯된 편견일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은 팬스레 짜증나고
신경질 나며 어떤 때는 창피할 때가 혹간 있기도 합니다. 모두가
필자의 빼뚫어진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필자에게 삿대질이
집중된다면 그도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 삿대질을 피하면서
까지 필자의 시각을 덮어둘 생각은 없습니다. 곧 그것은 그것대로
필자는 필자대로 서로 등을 지겠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 ‘등을 지겠다’
는 의미는 언감생심 원수지간이 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각을 달리
하고 있는 삿대질의 신앙적 양태(樣態)에 간섭하거나 해코지하지 않겠

다는 의미입니다. 이하 필자가 왜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냈는지 그간에 필자가 본 몇몇의 TV 화면 그대로를 마치 생방송처럼 표현해보면서 조심스럽게 이유를 밝혀볼까 합니다.

예배집회장은 온통 깜깜했습니다. 다만 천정에는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마치 흐르는 물처럼 뒤덮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내는 온통 전자악기의 음향이 가득했고 그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해 두 팔 벌린 사람들의 메이리치는 합성과 모습들이 화면에 힐끗힐끗 보이기도 했습니다.

강단위의 예배인도자는 와이셔츠 차림에 소매웃깃을 걷어붙이고 그것도 마이크 하나 붙잡고 강단 이쪽에서 저쪽으로 쉼 새 없이 오고가면서 때로는 리듬에 맞춰 몸까지 흔들며 가며 찬송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 삽입된 설교는 마치 내일이면 세상의 종말이 오기라도 할 것인 양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설교 한 마디가 끝나면 회중의 떠들썩한 화답이 이어지기를 반복하다가 또 다시 긴 찬송 또 다시 짧은 설교가 반복되어지기를 수차례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형형색색 불빛은 영킨 듯 어지럽게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TV 음량은 귀를 쫑긋 세워야 들릴 수 있도록 고정해 두었지만 이때 필자는 화급히 음량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래된 TV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무당은 둘째치고라도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가수가 이 모습을 보았다면 아마도 한 수 배워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한동안 필자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맴맴 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습은 필자의 머릿속에 선연합니다.

또 한 번은 한 교회의 주일설교를 지켜보았습니다. 설교자 또한 앞선 모습보다는 덜했지만 이곳저곳 강단을 오고가며 회중을 나무라

듯 설교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두드러지게 컸음은 둘째치고 화법은 존대(尊待)가 아니라 하대(下待)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채널에서는 젊은이를 위한 예배가 있었는데, CCM이나 소위 Worship 찬양과 함께 간혹 인도자의 짧은 성경구절의 인용멘트가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의 예배가 이것이 다인가 싶게 생각했던 것도 잠시, 이내 필자의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앞서 본 콘서트와 다른 점이 하나있다면 그것은 그보다는 조금은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되짚어 둘 것으로, 케이블 TV를 필자의 집에 들이고 지금까지 필자가 들여다 본 다른 채널, 곧 불교나 가톨릭의 예배나 강론 또는 설법은, 어느 방송프로그램도 TV 음량을 높였으면 높였지 지난번처럼 낮추는 일은 결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화제를 비약하여 한 번 생각해 보기에, 이 시대의 정서와 다양한 음악적 표현들이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여과 없이 무방비로 수용되어도 괜찮을까요? 유교의 제례의식에 비추어 열대와 일이나 현대의 인스턴트식품들이 젓상에 오를 때도 종단(宗團)이나 종가(宗家)의 심사숙고 끝에 그것도 수 년 동안의 숙의(熟議) 끝에 오르고 내리는 것이 상례인데, 허물며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로서 예배가 그때그때 시대의 흐름 따라 제멋대로 바뀌어도 무방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하 예배의 규례와 정체성에 관하여 하나하나 따져보며 본류를 되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상에서 열거한 바대로 작금의 변화된 예배의 모습과 형식이 알게 모르게 예배의 정수(精髓)로 자리매김 되어 있고 또한

되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자의 생각에는 아마도 2가지의 이유밖에는 생각해 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예배가 너무 고답적(高踏的, 사전적 의미로 보아,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고상하게 여기는 구석)이고 고루하다(固陋, 사전적 의미로 보아, 낡은 관념이나 습관에 젖어 고집이 세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다)고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예전의 예배보다도 새로운 예배가 본질적인 의미에 보다 가깝다고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것이 예전보다 낫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모두를 종합하면 지금까지의 예배는 “시대에 걸맞지 않고 또한 지금 것이 예전보다 더 낫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덧붙일 또 다른 다른 이유가 없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당의 굿판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콘서트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모름지기 이 모두는 나(자신)를 위한 것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유교의 제사나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자 드리는 각양의 제사를 생각해 볼 때, 이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조상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조상의 음덕(蔭德)을 빌미삼아 그 대가로 살아있는 후손들의 복(福)을 구하는데 두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모두의 공통점은 나(자신)를 위한 것에 두고 있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두를 기복(祈福)이라고 여겨 철저히 배격하고 있음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각에서 “시대에 걸맞지 않고 또한 지금 것이 예전보다 더 낫다”는 주장을 쫓개어 볼 때, 이는 누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곧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지금 것이 예전 것보다 더 낫다”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언감생심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여 그 알량한 믿음을 담보로 믿음만 변치 않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예배는 만수완창이 얹혀 있는 그대로 이런들 저런들 그저 그렇게 드러도 매한가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비유하기에, 시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기치아래 며느리가 안이 흰히 비치는 속옷을 입고 꺄렁꺄렁 시부모 앞에 밥상을 서슴없이 들이밀어도 괜찮을까요?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은 변치 않고 있다고 지껄이면서 아들놈이 췌상머리 앞에서 그것도 널브러져 있는 채로 이어폰 끼고 머리를 끄덕여가며 리듬을 타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처한 형편에 따라 ‘할 짓’이 따로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이 따로 있다면 그것이 의식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비유를 엄두에 두고 도대체 우리는 의식(예배)의 의미를 어떻게 바로잡아 세워두어야 할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아 ‘예배’(禮拜)는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儀式) 또는 그런 의식(儀式)을 행함’으로 풀이됩니다. 이 경우 ‘초월적 존재’는 우리로 보아 ‘하나님’이 되심에 마땅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의식은 ‘할 짓’을 명확히 하여 이를 규례로 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여기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이 개입되게 되면 이는 다름없이 패륜(悖倫)으로 지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며느리와 아들놈은 패륜의 주체가 되는 셈입니다. 아니 그런가요?

‘의식’은 본래 ‘하기 싫은 것을 읊아매서 이를 형식에 가둬둔 것’입니다. “형식(의식)에 뜻(마음)이 있다”는 말은 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읊아매는 의식이 곧 예배의 형식이 될 것임은 두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적 의미에서 다시보기에 ‘예배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재미있어야 할까요? 예배는 누가 뭐래도 말 그대로 유쾌 · 상쾌 · 통쾌하여야 할까요? 이도 저도 아니면 예배를 통하여 그간의 스트레스를 확 날려 버리는 것에 본연의 뜻을 두고 있어야 할까요? 앞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예배는 의식이 있기에 엄숙하여야 하고 숙연하여야 하며 때로는 비장하기까지 하여야 합니다. 적어도 올곧은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두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시끄럽고, 소란하며, 정신없고, 왁자지껄한 것은 아무리 그 안에 의식이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올곧은 마음이 스며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단코 예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시장(市場), 지옥(地獄), 무당의 굿판 등과 다른 점은 ‘소란한 것이냐’ 아니면 ‘엄숙한 것이냐’의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몇몇 기독교방송에서의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그 의미를 바로 새겨두어야 할까요? 필자가 보기에 그것들은 모두가 예배가 아니라고 단언하여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시끄럽고, 소란하며, 정신없고, 왁자지껄하며, 그러기에 의식이 없다는 시각에서입니다.

또 다시 그렇다면 왜 이 모양의 예배를 따라가고 때로는 추종하기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회자의 교만(驕慢)’ 때문입니다. 곧 교회를 지금보다 크게 하고자, 교회를 지금보다 더욱 세상에 알리고자, 목회자 자신의 지위를 높이하고자, 목회자 자신의 명성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자 함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것도 분별없이 스스로의 말에 취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중언부언(重言復言)하고, 열도당도않은 배경 없는 사건(私見)을 들먹이는 것은 보통이고, 이것을 저것과 섞어 짜깁기한 그것을 마치 새로운 기록인 양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게 하고, 오늘날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난 것도 아닐 것임이 분명한데 아닌 게 아니라 회중을 낚잡아 하대는 고사하고 싸잡아 죄인취급하고, 근본도 없고 배경도 없는 세상의 유명인사를 불러다가 시도 때도 없이 단상(壇上)을 어지럽히기 십상이고, 때로는 목회자를 비난하거나 그 생각 또한 마음에 품었다면 하나님의 종을 깔본 죄로 보아 필경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까지 더하고 있음을 보면, 이 모두가 목회자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젊은이의 예배가 본래 그런 것이라고요? 물론 지금의 그러한 의식이 결들여진 예배를 젊은이들이 싫어할 터이 없겠지요? 유쾌 · 통쾌 · 상쾌한 신나고 재미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되묻기에 그들 우리의 후사(後嗣)들은 어디에 읊아매져 있는 것인가요? 보다 정확히는 어디에 읊아매두고 계십니까? 말씀위에요? 신앙위에요?

바로 되짚어 두기에 필자는 지금 말씀과 신앙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여나 그들의 마음 한 중심에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재미로서,

유쾌 · 상쾌 · 통쾌, 스트레스 해소의 방편으로 예배(의식)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배의 엄숙과 숙연함과 비장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차 묻기에 어디에 읊아매두고 계십니까?

이후로의 예배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숙연하게 그리고 낱낱이 참회하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자 비장한 각오로 그 마음가짐을 결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올곧게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부르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며, 이 세상 다하는 날 우리가 이를 천국에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순리(順理)에 맞는 자연스러운 의식이라고 보아, 이 같은 우리들의 찬양과 노래는 거룩한 영적 예배 이후의 또 다른 의식으로서, 말 그대로 크리스천 저마다의 성대한 잔치(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넉넉잡아 마음 편히 생각하기에 목회자를 비롯하여 필자 또한 우리 모두 지금까지 예배와 잔치를 잠시나마 깜빡 혼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04:23-24)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01-02)